북스

Books

"노론사관이 십만양병설 조작했다"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이덕일 지음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조한 전쟁의 발발은 서기전 109년 패수에서 일어났다.

한 무제가 보낸 사신 섭하가 두 나라 사이의 국경 패수에서 자신을 배웅한 고조선의 비왕을 찔러죽여 전쟁이 시작됐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출발이 바로 패수와 한사군의 위치이다.

중국은 패수의 위치가 한반도 내인 압록강이나 더 나아가 청천강이고, 한사군의 중심지인 낙랑군도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저술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새책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은 일제 식민사관으로 얼룩진 한국사의 진실을 파헤친다.

한국사 왜곡에는 일제 식민사관과 노론사관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조선 후기 집권당이었던 노론의 상당수 인사는 일제의 대한제국 점령에 협력한 대가로 지배층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문 출신의 일부가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식민사관 전파에 일조했고, 해방 후에도 사학계 주류를 장악한 결과 노론사관과 식민사관이 한국사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역사 왜곡으로 ▲한사군은 한반도 내에 존재했는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는가 ▲노론사관은 어떻게 조선 후기사를 왜곡시켰는가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는가를 꼽는다.

저자는 고대사 왜곡의 원인을 일제 조선총독부가 1907년부터 한반도와 만주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찾는다.

일제 식민사학자 쓰다 소우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 등이 이 연구에 뛰어들어 조선 역사를 만주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또 고구려 유적도 한사군의 중심인 낙랑군 유적으로 재창조했다. 한국사를 식민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도록 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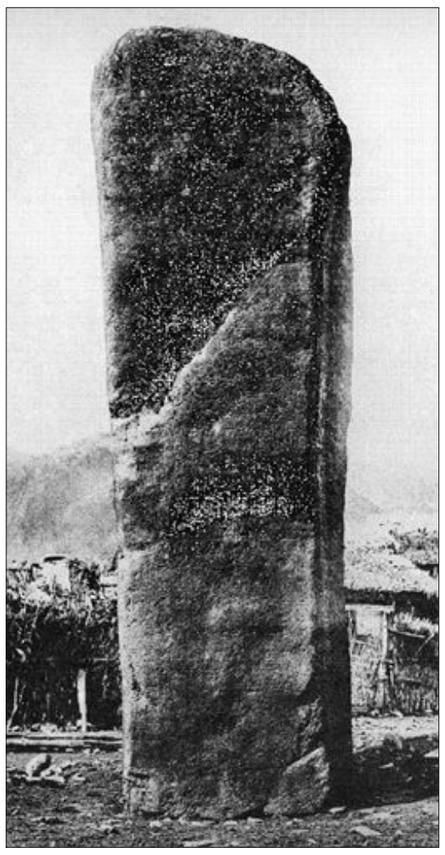
이들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부정하고, 고대 한반도 북부에는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이 있었고, 한강 남쪽은 78개 소국들이 다스렸다고 적었다. 다수의 소국이 있어야 이들 나라들을 통합할 '임나일본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식민사관을 이어받은 노론사관이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조작해 내고, 효종의 북벌에 시종일관 발목을 잡은 송시열이 북벌의 화신이며 실학의 이용후생학파(중상학파)를 노론이 주도한 것처럼 서술했다고 말한다.

또 또 일제 식민사관에 경도된 역사학자들이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사까지 왜곡한 과정 등을 짚어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의 실태도 샅샅이 파헤친다.

〈역사의 아침·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현(輯安縣) 퉁거우(通溝) 지방에 있는 고구려 19대 광개토 대왕의 비석. 높이 6.39m, 너비 1.35m~2m로 414년(장수왕 2) 광개토왕의 훈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인 장수왕이 건립하였다.

시대의 아이콘이 된 '인간 김대중'의 모든것

현직 언론인이 바라본 김대중의 모습을 담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평전 '사랑해요 DJ'가 출간됐다.

1993년 DJ의 고향인 하의도 토지투쟁사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약속의 땅'을 펴낸 인연을 갖고 있는 박호재(53) 전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집필한 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에서부터 개인적인 매력까지 김대중에 관한 모든 것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 김대중'의 전부를 담았다.

2년여에 걸친 치열한 취재와 탐방, 그리고 수많은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쓴 이번 책은 격랑의 현대사 속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한 거인의 기록이자 삶의 성찰로 다가선다.

〈이룸·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도 걷는다

고은 지음

老시인의 문학 행로는 계속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고은(76)의 삶의 행로와 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엿 볼 수 있는 산문집 '오늘도 걷는다'가 출간됐다.

조로와 요절이 잦았던 우리 문학사에서 지난 반세기 용용하게 수 백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펴낸 시인의 시대관과 문학관, 통일관과 인생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부 '세상의 메아리'와 4부 '남아 있는 자취'는 세상에 대한 고뇌와 이에 대한 시인의 깊고 아픈 성찰이 돋보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함께사는 관계이기보다 너무나 선혈 낭자의 경쟁관계에 노출돼 있다. 아니 경쟁이 아니라 각개 백병전 그것인지 모른다. 이런 세상의 막가는 판국에 굳이 현실 정치 그것 하나만 떼어서 질타한들 얼마나 옳겠는가"(14쪽)

또 '돌아온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 말미에 나오는 "아 단 하루만이라도 1주일만이라도 멋진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시인의 외침은 자못 가슴 아프다.

2부 '시를 부르면서'에서는 고은 시의 근원과 한국 현대시 100년의 역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시인의 문학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세월 시와 함께 살아온 시인은 결코 시가 사라지는 일은 없으며 시는 어디에나 있다고 힘줘 말한다.

3부 '이 땅에서의 꿈'은 나라를 잃고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민족시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바람과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나는 거의 날마다 동북아시아 한반도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볼 것이며 남과 북의 산야를 떠돌며 조국을 노래하고 민족을 애타게 부르짖을 것이다. 거지가 되어도 통일을 꿈꿀 것이다. 또한, 나는 지독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미워할 것이다."(157쪽)

이제는 몇 권 째인지 세는 것도 그만둘 만큼 방대한 저서를 썼지만, 아직도 하얗게 비어 있는 원고지를 보면 설렌다는 시인은 7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글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직도 열혈 청년이다. 여전히 매년 네 다섯권의 책을 내고 전국을 누비며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산문집의 제목 '오늘도 걷는다'처럼 시인은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시인의 행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원문화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박헌영 평전=닥터 노먼 베쑨, 체 게바라, 김산 등의 일생을 다룬 평전으로 한국 문단에 평전 붐을 일으켰던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의 27번째 책이다.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이현상 평전'을 쓴 안재성이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박헌영의 삶을 각종 구술자료 등을 통해 세세히 표현했으며 한국의 주요 현대사 장면을 포착한 70여컷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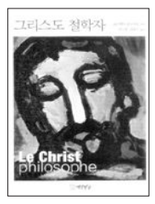
〈실천문학사·1만8천900원〉

▲굿바이, 스바루=뉴욕 출신으로 여행작가이자 프리랜서 기자인 덕 파인이 뉴멕시코 촌구석의 외딴 농장에 정착해 환경 친화적인 삶의 실험을 하면서 벌이는 좌충우돌 에코 농장 프로젝트. 갖가지 해프닝 속에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살아 있는 책이다. 〈사계절·1만2천원〉

▲붓다에게 물들다='정토회'의 법륜스님이 엮은 붓다를 만나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 번째 권이다. 보석 도둑을 쫓아가다가 붓다를 만나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보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귀족 자제, 자식을 잃고 실의에 빠졌다가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라는 붓다의 말에 온 동네를 다니다가 그런 집은 없다는 것을 알고 삶과 죽음의 진리를 깨우친 여인의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샨티·1만1천원〉

▲섬=헝가리 대문호 '열정'의 작가 산도르 마라이가 1934년 발표한 장편소설. 빅토르 아슈케나시는 안정된 직장과 가족, 사회적 지위를 두루 갖췄지만, 누구도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못해 철저한 고독을 느낀다.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 헤매는 중년 대학교수의 고백을 통해 삶의 비밀과 존재의 불안을 역설한다. 〈솔·1만1천원〉

▲그림, 한참을 들여다보다-시인의 눈으로 본 그림 이야기=김형술 시인은 여행을 할 때도 그곳의 화랑이나 미술관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로 하나의 작품 앞에 서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긴다. 그런 저자가 '시인의 눈'으로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부터 얀 사우덱 등 현대의 작가까지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시인의 감상을 담았다. 〈사문난적·1만3천원〉



▲그리스도 철학자=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인 종교사학자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충실할 것을 권한 책이다. 저자는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교회제도에 의해 가려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암서가·1만5천원〉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는가-톨스토이 잠언집=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인생의 잠언들을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선물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3부작에서 행복, 사랑, 이상 등의 주제만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그가 명작에서 뽑아 편찬한 격언들과 그 속에서 깨달은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문장을 함께 담았다. 〈조화로운 삶·1만2천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리틴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농성동	대2613,건3838	63억4천	30억	예식장
송하동	대138,건499	13억2천	9억6천	교회,사무실
송정동	대192,건343	9억7천	4억3천	지1,지상4층
담양읍	대4500,건4909	64억6천	36억2천	찜질방
도곡면	대1818,건582	6억9천	3억8천	음식점,요양시설
삼각동	대864,건688	10억7천	4억8천	가복선물식점
목포옥암동	대339,건133	5억4천	3억	유흥주점
운암동	대496,건2536	23억	8억2천	관광호텔
주월동	대364,건1008	6억8천	4억7천	마트,목욕탕
풍영동	대700,건2005	19억3천	8억6천	마트,오피스텔
목포옥암동	대728,건3280	27억	15억	8층상가빌딩
방림동	대239,건514	2억9천	2억	원룸10세대
백운동	대159,건462	2억9천	2억	원룸19세대
우산동	대740,건3118	35억8천	18억3천	7층빌딩
계림동	대215,건407	3억5천	2억4천	원룸14세대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산안동	대73,건215	6억5천	3억6천	5층 모텔
백운동	대108,건303	8억7천	3억9천	5층 모텔
구동	대149,건375	9억6천	5억4천	6층 모텔
여수시	대874,건3406	27억2천	9억7천	관광호텔
산안동	대227,건955	6억9천	3억1천	현재원룸23룸
구동	대492,건1241	9억6천	5억3천	6층 모텔
목포상동	대213,건784	4억8천	2억7천	4층모텔
여수시	대357,건1042	8억9천	4억5천	5층모텔
계림동	대251,건494	4억4천	1억5천	5층모텔
전주시	대529,건952	11억7천	6억	5층모텔
남촌동	대실1층 726㎡	14억4천	4억1천	마트자리
치평동	3층 119㎡	2억	7천3백	오피스텔
중흥동	시니스1층90㎡	5억2천	5억2천	마용실
용두동	옥상2층228㎡	4억2천	2억8천	PC방
용두동	옥상3층228㎡	3억5천	2억5천	당구장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장성진월	대1144,건838	7억4천	2억6천	2층공장
화순한천	대20092,건10406	36억	13억	단층공장
봉동	대2309,건1660	10억9천	6억1천	2층공장
월출동	건893	9억5천	4억2천	건물만매각
영광읍	대1653,건967	2억9천	1억3천	수산물냉동
옥룡	대3306,건2428	17억1천	9억5천	2층공장
화순춘향	대4770,건1658	4억4천	1억9천	단층공장
곡성오곡	대47030,건9992	98억2천	43억1천	콘크리트공장
도산동	농지144586㎡	20억8천	7억4천	1종주거지역
화순도곡	대지4493㎡	6억7천	2억4천	온천지구내
방림동	대지441㎡	4억8천	2억7천	중심상업지역
쌍촌동	대지595㎡	2억8천	1억5천	2종주거지역
장성읍	임야108308㎡	1억6천	1억1천	지연녹지지역
삼거동	임야4860㎡	1억1천	8천1백	보전관리지역
화순북면	농지8698㎡	9억8천	4억4천	왕복2차선집

생촌동 [아파트부지] 2층 일반거주지역2440㎡ 교회, 도시형생활주택, 고급빌라빌라 매매가 12억8천 [급매] 베애문의010-7570-7525

신안동[원룸] 대191㎡,건736㎡ 원룸 21개 ROOM 올리모델링,최상컨디션 급매 4억8천 [조정가] 전문상담 010-7570-7525

운암동 [관광호텔] 대498㎡,건2538㎡ 감정가 23억 최저가 8억2천 전문상담 010-7570-7525

목포 옥암동 [빌딩] 대728㎡,건3280㎡ 감정가 27억 최저가 15억2천 전문상담 010-7570-7525

화순읍 [찜질방] 대6285㎡,건6017㎡ 감정가 68억9천 최저가 24억 전문상담010-7570-7525

진월동 [광주대입구] 상가(지하) 매매 호프 132㎡, 분식66㎡ 시설완비 성업중 매매가 1억1천(급매) 보증금1천 실인수금3천만원 베애문의 010-7570-7525

계림동[E마트코너매매] 1층 17평형, 매매가 6천5백만(급매) 선릉코너,속옷가게 적합 베애문의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병수팀장 010-4640-2142

소재지	명칭	평	총층/층	감정가	최저가
풍암동	우미광장	24	18/6	8천8백	6천1백
일곡동	한일아파트	18	21/7	8천3백	5천8백
치평동	현대아파트	36	20/6	1억7천	1억2천
소촌동	한광아파트	32	12/9	1억3백	5천7백
쌍촌동	대아아파트	73	16/3	2억1천	1억7천
쌍촌동	온세계아이조움	32	15/15	2억	1억4천
치평동	현대아파트	37	20/6	1억7천	1억1천
백운동	대흥백운스카	54	24/6	1억4천	9천8백
진월동	진월2차삼익	47	18/2	1억8천	1억1천
쌍촌동	광명하이츠	50	25/9	1억3천	9천4백
진월동	삼익아파트	38	18/2	1억8천	1억1천
운림동	남해오네뜨빌	60	13/5	3억2천	2억2천
쌍촌동	광명하이츠	50	25/9	1억3천	9천4백
월계동	일신아파트	32	12/6	8천	5천6백
운암동	벽산블루밍	32	26/25	1억8천	1억1천

주택/재개발 정여사 010-5879-008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삼각동	대124,건55	1억6천	5천9백	주택
학동	대47,건40	1억1백	7천	2층주택
운암동	대56,건64	1억5천	1억8백	2층주택
양동	대33,건34	6천2백	3천5백	주택
풍향동	대124,건115	3억8천	2억1천	2층주택
화정동	대43,건81	1억5천	1억	주택
담양무정	대178,건37	4천5백	2천5백	주택
주월동	대51,건51	1억3천	7천8백	2층주택
주월동	대40,건36	9천2백	6천4백	주택
산수동	대60,건57	1억3천	8천5백	주택
곡성읍	대392,건69	2억4천	1억3천	주택
운암동	대174,건21	3억4천	2억4천	주택
풍향동	대34,건16	5천	2천8백	주택
하산동	대203,건64	1억5천	1억	주택
풍향동	대35,건40	1억2천	8천4백	주택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임동	대40,건32	8천	4천5백	2층상가주택
쌍촌동	대87,건152	4억8천	3억2천	4층편의점,다가구
주월동	대110,건305	6억8천	4억7천	4층목욕탕,미용실
해남읍	대585,건362	8억5천	3억8천	볼링장10레인
목포시	대159,건183	5억7천	2억1	1층점포,3층주택
동명동	대211,건606	19억3천	8억6천	마트,오피스텔
나주시	대206,건281	4억	1억4천	2층점포
나주시	대1043,건190	3억3천	1억8천	가든
순천시	대112,건71	5천6백	3천1백	점포,근린주택
완도읍	대177,건126	5억8천	3억3천	2층상가주택
장성읍	대157,건61	3억5천	1억9천	1층근린주택
동명동	대124,건115	3억8천	2억1천	2층근린주택
계림동	대61,건155	1억8천	8천9백	3층상가주택
목포시	대67,건238	4억8천	3억4천	5층상가주택
순천시	대80,건137	4억3천	2억4천	4층상가주택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 타운 빌딩
상가분양사무소 직원모집
• 남 0명, 여 0명(기본급+성과급)
• 나이 25~35세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